

유란시아서

<< [제 86 편](#) | [부분](#) | [내용](#) | [제 88 편](#) >>

제 87 편

귀신 숭배

87:0.1 (958.1) 귀신 숭배는 불운의 위험을 상쇄하는 수단으로서 진화했으며, 그 원시적 종교 관행을 지키는 것은 불운을 걱정하고 죽은 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생긴 결과였다. 이 초기 종교 가운데 아무것도 신을 인식하거나 초인간을 존경하는 것과 그다지 상관이 없었다. 그러한 의식(儀式)은 대체로 소극적이었고, 귀신을 피하거나 내쫓거나 강제하려고 고안되었다. 귀신 숭배는 재난에 대한 보험에 불과하였고, 앞날에 더 높은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87:0.2 (958.2) 사람은 귀신 숭배와 오랫동안 격심한 투쟁을 해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귀신 및 영 공포증에 사람이 비참하게 노예가 된 이 그림보다 더 측은한 느낌을 일으키도록 예정되지 않았다. 바로 이 두려움이 태어나면서, 인류는 종교적으로 진화하는 오르막길에서 발을 내디디었다. 인간의 상상력은 자아(自我)의 바닷가를 떠나갔고, 참된 신, 진정한 **하나님** 개념에 이를 때까지 또 다시 정박할 곳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1. 귀신 공포증

87:1.1 (958.3) 죽음이 육체에서 또 하나의 귀신을 해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방지하려고, 새 귀신과 다투어야 하는 곤경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귀신이 죽음의 장면을 떠나서, 죽은 자의 땅으로 길을 떠나게 유인하려고 언제나 안달하였다. 죽을 때 귀신이 솟아나서 나중에 귀신의 고향으로 떠나기까지 과도기라 생각된 동안에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귀신을 가장 무서워했고, 이 귀신의 고향은 거짓 하늘에 대한 흐릿한 원시 개념이었다.

87:1.2 (958.4) 귀신이 초자연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했어도, 야만인은 도저히 귀신이 초자연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귀신들의 눈을 가리고 속이려는 노력으로 많은 계교와 전술이 쓰였다. 문명화된 사람은 아직도 경건함을 겉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든 전지(全知)한 신조차 속일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를 많이 건다.

87:1.3 (958.5) 원시인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병이 흔히 죽음의 전조(前兆)인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부족의 주술사가 앓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을 보통 가족 오두막에서 옮겼고, 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노천에서 혼자 죽도록 버려두었다. 죽음이 일어난 집은 보통 부수어 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반드시 피했고, 이 두려움은 시초 인간이 튼튼한 거처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 두려움은 또한 영구한 촌락이나 도시의 건설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87:1.4 (958.6) 야만인들은 씨족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밤을 새우고 이야기했다. 시체 근처에서 잠이 들면 그들도 죽을까 두려워했다. 시체로부터 전염(傳染)되는 것은 죽은 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율음을 입증했고, 모든 민족이 죽은 자와 접촉이 있는 뒤에 개인을 깨끗하게 하려고 고안된 공들인 정화(淨化) 예식을 언젠가 이용하였다. 옛 사람들은 시체에게 빛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시체를 결코 어둠 속에 남아 있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20세기에 죽은 사람의 방에서 아직도 촛불을 켜며, 사람들은 아직도 죽은 자와 함께 깨어 있다. 이른바 문명화된 사람은 생활 철학에서 시체를 두려워하는 생각을 아직도 완전히 없앴다고 할 수 없다.

87:1.5 (959.1)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을 속이려고 애썼다. 죽은 사람의 오두막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결코 문이 아니라, 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시체를 옮겼다. 귀신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귀신이 머무르는 것을 막고 돌아오지 못하게 보장하려고 이 절차를 밟았다. 조객(弔客)들은 또한 귀신이 따라오지 않도록 장례식에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귀신이 무덤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장하려고, 뒷걸음질과 수십 가지 다른 전략이 쓰였다. 남녀는 귀신을 속이려고 흔히 옷을 바꾸어 입었다. 애도하는 복장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변장시키려고, 후일에는 죽은 자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그래서 귀신을 달래려고 고안되었다.

2. 귀신 달래기

87:2.1 (959.2) 종교에서 귀신을 달래는 소극적 계획은 영에게 강요하고 부탁하는 적극적 계획보다 오랫동안 앞섰다. 인간의 첫 숭배 행위는

방어(防禦) 현상이요 존경 현상이 아니었다. 현대인은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을 현명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야만인은 귀신이 불운을 일으키는 것에 대비하여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보장을 얻으려는 노력이 귀신 숭배의 기술과 의식이었다.

87:2.2 (959.3) 한때 귀신의 큰 소망은 방해 없이 저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빨리 “눅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귀신을 눅히는 의식을 치를 때, 살아 있는 자의 행위에서 무엇을 저지르거나 빠뜨리는 무슨 잘못도 귀신이 귀신 나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늦추었다. 이것은 귀신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성난 귀신은 재난과 불운과 불행의 근원이라 생각되었다.

87:2.3 (959.4) 장례식은 귀신의 혼이 미래의 집을 향하여 떠나도록 유인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생겨났고, 장례식의 설교는 최초에, 새 귀신이 어떻게 거기에 가는가 가르치려고 고안되었다. 귀신의 나그네 길을 위하여 먹을 것과 옷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풍습이었고, 이 물건들을 무덤 안이나 가까이에 놓았다. 야만인은 “귀신을 눅히는” 데 — 귀신을 무덤 근처에서 쫓아내는 데 — 사흘에서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혼이 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무른다고 아직도 믿는다.

87:2.4 (959.5) 사람이 죽은 뒤에 귀신이 집으로 마음이 끌려 돌아오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거나 애도하였다. 자학(自虐) — 상처 내기 — 는 보통의 애도 형태였다. 머리가 깨인 많은 선생이 이것을 막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단식과 기타 형태의 극기(克己)는 귀신을 기쁘게 한다고, 저승을 향하여 실제로 떠나기 전, 근처에 숨어 있는 과도기에, 그 귀신은 산 사람의 고통을 기뻐한다고 생각되었다.

87:2.5 (959.6) 오랫동안 그리고 빈번히 애도하고 활동하지 않는 기간은 문명의 진보에 커다란 장애물의 하나였다. 해마다 몇 주, 아니 몇 달까지도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도에 낭비되었다. 직업으로 애도(哀悼)하는 자들이 장례식 때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애도가 의식(儀式)이요, 슬픔의 증거가 아님을 가리킨다. 현대인은 존경해 마지않아서, 또는 사별한 것이 슬퍼서 죽은 자를 애도할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87:2.6 (959.7) 죽은 자의 이름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은 흔히 언어에서 추방되었다. 이러한 이름은 금기(禁忌)가 되었고, 이 방법으로 언어는 항상 빈곤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이나 날”과 같은 상징 언어와 비유적 표현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87:2.7 (960.1) 옛날 사람들은 몹시 귀신을 쫓아버리고 싶어서, 그들이 일생에서 바랐을까 싶은 것을 모조리 귀신에게 내밀었다. 귀신들은 아내와 하인들을 바랐다. 살림이 넉넉한 야만인은 죽을 때 적어도 노예 아내 하나가 산 채로 파묻히기를 기대하였다. 나중에는 과부가 남편의 무덤에서 목숨을 끊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어른 귀신이 따라가서 아이 귀신을 돌보도록, 어머니나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흔히 목 졸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제 목숨을 버린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다. 정말로, 그들이 관습을 어기고 살았더라면, 귀신이 노여워한다는 두려움은 원시인이 누렸던 얼마 안 되는 그런 즐거움마저 인생에서 빼앗았을 것이다.

87:2.8 (960.2) 죽은 추장을 따라가라고 큰 떼의 종들을 보내는 것이 풍습이었다. 노예들은 그 주인이 죽었을 때, 귀신 나라에서 그를 섬기라고 살해되었다. **보르네오**인은 아직도 안내하는 동반자를

마련한다. 노예는 죽은 주인과 함께 귀신의 길을 떠나라고 창에 찔려 죽는다. 살해된 사람의 귀신은 자기를 죽인 자의 귀신을 노예로 가지기를 기뻐한다고 믿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머리 사냥을 하도록 유인했다.

87:2.9 (960.3) 귀신은 먹을 것의 냄새를 즐긴다고 생각되었다. 장례식 잔치에 먹을 것을 바치는 것은 한때 보편적이었다. 먹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원시 방법은, 주문을 중얼거리면서 영들을 달래는 목적으로 불 속에 먹을 것을 조금 던지는 것이었다.

87:2.10 (960.4) 죽은 자는 살았을 때 가졌던 연장과 무기(武器)의 귀신을 쓴다고 생각되었다. 물건을 깨뜨리는 것은 “물건을 죽이는” 것이며, 따라서 귀신 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떠나가라고 그 귀신을 놓아주었다. 재산도 태우거나 파묻어 희생하였다. 옛날 장례식의 낭비는 엄청났다. 후일의 종족들은 종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 죽음의 희생물을 바칠 때 진짜 물건과 사람 대신에 그림으로 바꿔 치웠다. 친척 상속이 재산을 태우고 파묻는 것을 대체했을 때, 문명에 큰 진보가 있었다. **이로쿼이 인디안**은 장례식의 낭비에 많은 개혁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보존은 그들로 하여금 북부 홍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 현대인은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풍습은 질기며, 땅에 있는 많은 재산이 아직도 장례 의식과 사망 예식에 소모된다.

3. 조상 숭배

87:3.1 (960.5) 깊어지는 귀신 숭배는 조상 숭배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조상 숭배가 보통 귀신과 상급 영, 곧 발달하는

신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신들은 다만 세상을 떠나 영화롭게 된 인간이었다.

87:3.2 (960.6) 조상 숭배는 최초에 숭배이기보다 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관념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널리 퍼뜨리는 데 분명히 기여했다. 초기의 조상 및 귀신 숭배자들은 하품할 때 몸 속으로 나쁜 귀신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 하품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87:3.3 (960.7) 양자(養子)를 얻는 관습은 혼이 평안하고 잘 가기 위해서 죽은 뒤에 누군가가 공물을 꼭 마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야만인은 동료의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죽은 뒤에 자기 귀신의 안전한 처신을 계획하는 데 남은 시간을 썼다.

87:3.4 (960.8) 대부분의 부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온갖 귀신의 잔치를 시작하였다. **로마**인은 해마다 열두 번 귀신 잔치와 그에 따르는 예식이 있었다. 1년의 반은 이 옛 종파들과 연결된 어떤 종류의 예식에 바쳤다. 어느 **로마** 황제는 축제일을 1년에 135일로 줄여 이 풍습을 개혁하려고 애썼다.

87:3.5 (961.1) 귀신 숭배는 줄곧 진화하고 있다. 귀신들이 불완전한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지나간다고 상상하자, 그 숭배는 결국 영, 아니 신들까지 예배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상급 영들에 관한 다양한 관념과 상관없이, 모든 부족과 종족이 한때 귀신을 믿었다.

4. 좋은 귀신과 나쁜 귀신

87:4.1 (961.2) 귀신 공포증은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부족이 귀신들이 한 종류라는 옛 관념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귀신이 기뻐할 때 사람의 운이 좋고, 귀신이 성날 때 운이 나쁘다고 가르쳤다.

87:4.2 (961.3) 귀신을 두려워하는 숭배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급 종류의 영, 어떤 개별 인간이라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영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이들은 귀신 나라의 영토를 지나서 더 높은 영의 영토로 나아간 영, 졸업하거나 영화롭게 된 영들이었다.

87:4.3 (961.4) 두 종류의 영 귀신이 있다는 개념은 세계 전역에 두루,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보했다. 이 새로운 이영(二靈) 사상은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퍼질 필요가 없었다. 세계 전역에 걸쳐서 따로 솟아났다. 확대되는 진화된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 개념의 힘은 그 현실성이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의 뚜렷함과 개념을 널리 쉽게 간단히 적용하는 데 있다.

87:4.4 (961.5) 시간이 더 지나서 사람의 상상력은 좋은 초자연의 매체와 나쁜 매체 개념을 상상했다. 어떤 귀신은 결코 착한 영의 수준으로 진화하지 않았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일영(一靈) 사상은 차츰 이영 사상으로 진화했고, 이것은 땅의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한다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에는 각자를 통제하는 자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두 종류 사이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집단은 더 활발하고 수가 많다고 믿었다.

87:4.5 (961.6) 좋은 영, 나쁜 영의 교리는 마침내 성숙했을 때, 모든 종교 관념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지고 오래 지속하였다. 이 이원 사상은 큰 종교 철학의 진보를 의미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운과 불운을 설명하게 하고,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간 존재를 믿게 하기 때문이다. 영들은 좋든지 아니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 가장 원시적 종교의 일영 사상에 담긴 초기 귀신들이 완전히 변덕스럽다고 상상했는데, 이 영들도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간 세력을 마침내 상상할 수 있었고, 이것이 종교 진화의 역사 전체에서, 인간 철학의 성장에서, 가장 중대한 진실의 발견 중에 하나였다.

87:4.6 (961.7) 그러나 진화된 종교는 이영 사상의 개념을 얻으려고 끔찍한 값을 치렀다. 사람이 초기에 가진 철학은, 하나는 좋은 영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영, 오직 두 가지의 영을 가정하고서, 영의 불변성과 현세의 행운의 변화를 절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연의 변수를 변하지 않는 초인간 세력의 개념과 조화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 교리는 그 뒤로 계속, 종교가들이 우주의 통일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신들은 일반적으로 암흑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87:4.7 (962.1) 이 모든 것에 나타나는 비극은,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의 원시 지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온 세계에 나쁘거나 화목하지 않은 영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은 **칼리가스티아** 반란이 있을 때까지 생기지 않았고, 오순절까지만 지속되었다. 선과 악이 우주에서 대등하다는 개념은 20세기에도 인간의 철학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세계 종교의 대부분은 귀신 숭배가 고개를 들던 시절, 아득히 오랜 시절에 태어났다는 이 문화적 표시를 아직도 지닌다.

5. 진보하는 귀신 숭배

87:5.1 (962.2)

원시인은 영과 귀신이 거의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으나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영들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도 아무 권리가 없다고 여긴다고 생각되었다. 사람이 자기의 영적 임무를 항상 이행하지 못해서 영들이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믿었다. 인류는 귀신이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 값으로 귀신 섬기는 세금을 계속 부과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었고, 아주 작은 불운도 귀신이 활동한 탓으로 돌렸다. 초기의 인간들은 신들이 받을 어떤 명예를 그들이 간과하는가 아주 두려워해서, 알려진 모든 영에게 희생물을 바친 뒤에, 그저 철저히 안전하게 해 두려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다시 한 번 바쳤다.

87:5.2 (962.3)

이제 단순한 귀신 숭배 다음에 더 진보되고 비교적 복잡한 영 및 귀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뒤따랐으며, 이것은 사람의 원시적 상상(想像) 속에서 상급의 영들이 진화함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었다. 종교 예식은 영이 진화하고 진보하는 데 발걸음을 맞추어야 한다. 확대된 숭배는 초자연 존재들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자아 유지 기술, 곧 영 환경에 대한 자아의 조정이었을 뿐이다. 산업 조직과 군사 조직은 자연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조정이었다. 결혼이 남녀의 요구를 채우려고 생겨난 것처럼, 종교적 조직은 상급의 영 세력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 관념에 반응하여 진화했다. 종교는 사람이 우연의 신비에 관한 망상에 적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영을 두려워하고 후일에 영을 숭배하는 것은 불행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번영을 보장하는 방책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87:5.3 (962.4)

야만인은 좋은 영들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다니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상상한다. 기분이 좋은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나쁜 귀신과 영들이었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호의를 가진 영보다 악의(惡意) 있는 귀신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87:5.4 (962.5) 인간의 번영은 특히 악한 영들의 질투를 일으킨다고 생각되었고, 그들이 앙갚음하는 방법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리고 악한 눈의 기술을 써서 보복하는 것이었다. 영을 피하는 것과 상관되는 단계의 숭배는, 악한 눈의 간계와 상당히 관계되었다. 악한 눈 공포증은 거의 세계적으로 퍼졌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악한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베일을 썼다. 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어 하는 못 여인이 이 관습을 따랐다. 나쁜 영을 이렇게 두려워한 것 때문에 어두워진 뒤에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는 일이 드물었고, 옛날의 기도는 언제나 “악한 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부탁을 담았다.

87:5.5 (962.6) **코란**은 한 장 전체를 악한 눈과 주문(呪文)에 배당하며, **유대인**은 이를 믿었다. 남근(男根) 숭배 전부가 악한 눈에 대한 방어로서 생겨났다. 생식 기관은 악한 눈을 힘없게 만드는 유일한 주물로 생각되었다. 악한 눈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 곧 어머니의 영향에 관하여 첫 미신이 생기게 하였고, 이 유행은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87:5.6 (963.1) 질투는 인간의 뿌리 깊은 특성이다. 따라서 원시인은 질투를 초기 신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람은 일단 귀신 속이기를 실행한 뒤에, 곧 영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영들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시샘하면, 우리 스스로를 불품없이 만들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하리라” 말했다. 그러니까, 초기의 겸손은 자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샘하는 영들을 따돌리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87:5.7 (963.2) 인간의 번영을 영들이 질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채용한 방법은 운 좋거나 많이 사랑받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칭찬하는 말을
깎아내리는 관습은 이 방법으로 기원을 가졌고, 그것은 결국 문명화된
검손 · 자제 · 예의로 진화했다. 같은 동기와 발걸음을 맞추어, 못나
보이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아름다움은 영들의 시샘을 일으켰고,
아름다움은 죄 많은 인간의 자존심을 표시하였다. 야만인은 못난
이름을 찾았다. 이 유행의 특성은 예술의 진보에 큰 장애가 되었고,
세계를 오랫동안 어둡침침하고 보기 싫게 만들었다.

87:5.8 (963.3) 영을 숭배하던 시절에, 목숨은 기껏해야 노름이요 영이
통제해서 생기는 결과였다.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용될 때를
제쳐 놓고, 사람의 앞날은 노력이나 부지런이나 재능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을 달래는 예식은 무거운 짐이었고, 인생을 지루하고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대로 술한 민족이 이
초월 귀신의 교리를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까지 감히
이를 통째로 물리치려 하지 않았다.

87:5.9 (963.4) 영들의 의도와 뜻은 전조(前兆) · 신탁 · 징조의 수단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영의 말씀은
점치기 · 예언 · 마술 · 시련 · 점성술로 풀이하였다. 그 숭배 전체가 이
가장된 뇌물을 통해서 영들을 달래고, 만족시키고 매수(賈收)하려고
고안된 계획이었다.

87:5.10 (963.5) 이처럼 새롭고 확대된 세계 철학이 성장하였고 이는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87:5.11 (963.6) 1. 의무 — 영들을 기분 좋게, 적어도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해서 해야 할 일.

87:5.12 (963.7) 2. 권리 —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영들을 적극 설득하려고
고안된 바른 행위와 예식.

87:5.13 (963.8) 3. 진실 — 영들을 똑똑히 이해하는 것, 영들에 대한 태도,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87:5.14 (963.9) 옛날 사람들이 앞날을 알려고 애쓴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운을 피하고 싶어 했다. 점치기는 단지 곤경을 피하려는 시도였다. 이 시절에 꿈은 앞을 예언한다고 생각되었고, 한편 보통 아닌 것은 모두 전조라고 생각되었다. 오늘날도 문명화된 민족들은 징조와 표시, 그리고 옛날의 깊어지는 귀신 숭배에서 기타 미신의 잔재를 믿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사람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화 생명의 눈금을 올라가는 데 사용한 이 방법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릴 것이다.

6. 강제와 귀신 쫓아내기

87:6.1 (963.10) 사람들이 귀신만 믿었을 때, 종교 의식은 더 개인적이고, 더 체계가 없었지만, 높은 영들을 인식한 것은 그들을 다루는 데 “높은 영적 방법”의 이용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다듬으려는 이 시도는 직접 영들에 대한 방어 조치를 고안하게 만들었다. 땅에서 사는 인생에서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 앞에 정말로 사람은 무력함을 느꼈고, 그의 열등감은 어떤 보상하는 조정, 곧 사람 대 우주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승산(勝算) 있게 만드는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애쓰게 만들었다.

87:6.2 (964.1) 숭배의 초기 시절에 귀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의 노력은 달래기, 곧 뇌물로 불행을 피하려는 시도에 국한되었다. 귀신 숭배의 진화가 나쁜 영만 아니라 좋은 영이 있다는 개념까지

진보함에 따라서, 이 예식들은 더 적극적 성질을 가진 시도로,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이제 더 철저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고, 사람은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얼마 안 되어 사람은 영의 협동을 강제할 수 있는 계락을 꾸미기 시작했다. 종교가는 스스로 지어낸 영 환상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이제는 더, 방비 없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야만인은 영의 행위를 강제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武器)를 비로소 발명한다.

87:6.3 (964.2) 사람의 첫 방어 노력은 귀신을 향한 것이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살아 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비로소 고안하였다. 귀신을 놀라게 하고 쫓아 버리기 위하여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가운데 다음 것을 늘어놓아도 좋겠다:

- 87:6.4 (964.3) 1. 목을 자르고 몸을 무덤에 묶어 놓기.
- 87:6.5 (964.4) 2. 죽음이 있었던 집에 돌 던지기.
- 87:6.6 (964.5) 3. 시체를 거세하거나 시체의 다리를 분지르기.
- 87:6.7 (964.6) 4. 돌 밑에 묻기, 현대 묘비의 한 기원.
- 87:6.8 (964.7) 5. 화장(火葬), 귀신 문제를 막으려고 후일에 발명한 것.
- 87:6.9 (964.8) 6. 시체를 바다에 던지기.
- 87:6.10 (964.9) 7. 시체를 야생 동물이 먹도록 버리기.

87:6.11 (964.10) 귀신은 시끄러우면 들볶이고 놀란다고 생각되었다. 소리지르기, 종 소리, 북 소리는 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한 옛 방법은 죽은 자를 위하여 “밤샘”할 때 아직도 유행한다. 나쁜 냄새의 혼합물이 반갑지 않은 영들을 쫓아내려고 이용되었다. 영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허겁지겁 달아나라고 영들의 소름 돋는 형상이 세워졌다. 개는 귀신이 다가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 개는 높은 소리로 짖어서 경고한다, 귀신이 가까이 있을 때 수탉이 울곤

한다고 믿었다. 풍향계로서 수탉을 쓰는 것은 이 미신이 지속된 것이다.

87:6.12 (964.11) 귀신을 막는 데는 물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되었다. 거룩한 물, 곧 사제들이 발 씻은 물은 모든 다른 형태보다 뛰어났다. 불과 물은 다 귀신들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장벽이라고 믿었다. **로마인**은 시체 둘레에 물을 세 번 날랐고, 20세기에 몸에 신성한 물을 뿌리고 공동 묘지에서 손 씻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의식(儀式)이다. 세례는 후일에 물로 행하는 의식의 특성이었다. 원시의 목욕은 종교 예식이었다. 요즘에 와서야 목욕은 위생 관습이 되었다.

87:6.13 (964.12) 그러나 사람은 귀신을 강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종교 의식과 기타의 관습을 통해서, 사람은 곧 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애썼다. 귀신 쫓아내기는 한 영을 통제하거나 쫓아내려고 다른 영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 전술은 또한 귀신과 영들을 놀라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좋은 세력과 나쁜 세력이 있다는 이영(二靈) 개념은 한 힘이 다른 힘과 싸우게 만들려고 애쓰는 충분한 기회를 사람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해치울 수 있다면 힘센 영은 분명히 열등한 귀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의 저주(詛呪)는 작은 영들을 겁주려고 고안된 강제하는 관습이었다. 나중에 이 풍습은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87:6.14 (965.1) 더 오래 전에 있던 도덕 관습으로 돌아가서 영과 반신반인(半神半人)들이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었다. 현대인은 똑같은 과정을 밟는 죄가 있다. 너희는 서로에게 보통 말, 날마다 쓰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는 다른 세대의 더 오래 된 말씨, 이른바 엄숙한 말씨에 의존한다.

87:6.15 (965.2) 이 신조는 또한 성전 매춘과 같은, 성교의 성질을 가진 많은 종교 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설명한다. 원시의 풍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재난을 막는 확실한 보호 조치라
생각되었다. 머리가 단순한 이 민족들의 경우에, 모든 그러한 연출에는
현대인이 난교(亂交)라고 부를 만한 점이 도무지 없었다.

87:6.16 (965.3) 다음에 의식(儀式)에서 서약하는 관습이 왔고, 곧 뒤이어
종교적 서약과 거룩한 맹세가 따랐다. 이 맹세의 대부분에 자학(自虐)
과 자기 몸 잘라 내기가 따랐고, 나중에는 단식(斷食)과 기도가
뒤따랐다. 금욕은 나중에 확실한 강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성욕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특히 참말이었다. 그래서 원시인은 그의
종교 관습에서 굳은 결심으로 내핍 생활을 일찍부터 개발하였고,
이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영들로부터 모든 그러한 고통과 결핍에 좋게
반응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의식으로서, 자학과 금욕이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87:6.17 (965.4) 현대인은 드러내 놓고 영들을 강요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신과 협상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현대인은 아직도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포개고^[90], 어떤 낡은 구절을
외우며 침 뱉는다. 한때 그런 구절은 마력(魔力)이 있는 표현이었다.

7. 종파 예배의 본질

87:7.1 (965.5) 종파와^[91] 같은 사회 조직은 그것이 도덕적 감각과 종교적
충성을 보존하고 자극하는 상징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속했다. 예배는
“오래 된 가족들”의 전통에서 생겨났고, 확립된 제도로써 지속되었다.
모든 가족은 어떤 종류의 예배를 지니고 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이상은 어떤 지속되는 상징을 붙잡는다 —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고 실현을 확대하는 어떤 문화적 명시 기법을 추구한다 — 그리고 예배는 감정을 조장하고 만족시켜 이 목적을 이룬다.

87:7.2 (965.6) 문명의 아침이 밝아올 때부터 사회의 문화나 종교적 진보에서 마음을 끄는 운동마다 의식(儀式), 상징적 예식을 개발하였다. 의식하지 않고 성장할수록 이 예식은 더 단단히 신봉자들을 붙잡았다. 예배는 정서를 보존하고 감동을 주었지만, 언제나 사회의 재편성과 영적 진보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87:7.3 (965.7) 예배하는 종파가 언제나 사회의 진화를 더디게 만들었는데도, 도덕 기준과 영적 이상을 가진 현대의 허다한 신봉자가 아무런 적절한 상징 — 서로 지지해줄 아무런 종파 — 소속해야 할 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종교적 제사는 제조될 수 없으며 성장해야 한다. 어떤 두 집단의 예배도 권한으로 그 의식(儀式)을 멋대로 표준화하지 않는 한, 동일할 수 없다.

87:7.4 (965.8)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일찍이 상상하거나 고안한 어떤 의식 중에도 가장 효과 있고, 마음을 끌고, 오래 가는 것이었으나, 그 가치의 많은 부분은 최초의 기본 신조들 가운데서 허다한 것이 없어짐으로 과학 시대에 파손되었다. 기독교의 예배는 많은 기초적 개념을 잃어버려 활력을 잃었다.

87:7.5 (965.9) 과거에는 예배가 탄력성 있고 그 상징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진실이 빨리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되었다. 풍부한 진실과 적응할 수 있는 예배는 사회의 빠른 진보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의미 없는 예배 의식은 철학을 대체하고 논리를 예측시키려고 애쓸 때, 종교를 망친다. 진정한 예배는 성장한다.

87:7.6 (966.1) 단점과 장애물과 상관없이, 진실이 새롭게 계시될 때마다 새 종파가 생겼고, **예수**의 종교를 다시 진술하는 것조차도 새롭고

적당한 상징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인은 새롭고 커지는 개념 · 이상 · 충성을 나타내는 어떤 적당한 상징을 찾아야 한다. 이 향상된 상징은 종교적 생활, 영적 체험에서 생겨나야 한다. 상급 문명의 이 상급 상징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사람이 형제라는 강력한 이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87:7.7 (966.2) 오래 된 종파들은 너무 자기 중심이었다. 새 종파는 사랑을 쏟음으로 생긴 산물이어야 한다. 오래 된 종파와 마찬가지로, 새 종파는 정서(情緒)를 길러 주고, 감동을 주고 충성을 조장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일해야 한다. 새 종파는 영적 진보를 수월하게 만들고 우주의 의미 있는 것들을 향상하며, 도덕적 가치를 키우고 사회 발전을 격려하며, 개인에게 높은 종류의 종교 생활을 자극해야 한다. 새 종파는 생활에서 현세적이며 영원한 목표 — 사회적이며 영적인 — 최고의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87:7.8 (966.3) 어떤 종파도 가정의 생물학적 · 사회학적 · 종교적 의미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고 사회 문명의 진보와 개인의 영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없다. 살아남는 종파는 변화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서 영구한 것을 상징해야 한다. 그 종파는 항상 바뀌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통일하는 것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종파는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높이며, 정말로 고귀한 좋은 가치 기준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87:7.9 (966.4) 그러나 새롭고 마음에 드는 상징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대인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과학적 태도에 집착하고 미신을 피하고, 무지를 무척 싫어하며, 한편 개인으로서 그들 모두가 신비를 몹시 좋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파도 어떤 멋진 신비를 담고,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상징은 그 집단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어떤 쓸모 있는 상징이라도 그 형태는 개인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 종파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역동적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무언가 갇힌 것을 정말로 이바지할지 모른다.

87:7.10 (966.5) 그러나 한 종파 — 의식(儀式)이나 표어나 목표와 같은 상징 — 이 너무 복잡하면 작용할 수 없다. 그리고 헌신, 충성스러운 반응을 요구해야 한다. 효과적인 모든 종교는 가치 있는 상징을 어김없이 개발한다. 그 신봉자들은 그러한 의식을, 사람을 가두고 보기 흉하게 만들고 숨막히게 하는, 판에 박힌 예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예식은 오로지 모든 사회의 진보, 도덕의 진보, 영적 진보에 장애가 되고, 진보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종파도 도덕적 성장을 지체하고 영적 진보를 촉진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종파의 예배는 뼈대요, 그 둘레에 몸소 영적 체험을 가지는 살아 있는 힘찬 몸 — 참 종교 — 가 자란다.

87:7.11 (966.6) **[네바돈의 한 찬란한 저녁별이 발표했다.]**

[90]: 87:6.17 액을 때우거나 행운을 빌려고 집게손가락 위에 가운데 손가락을 포개는 버릇.

[91]: 87:7.1 여기서 종파는 특정한 예식을 치르는 집단을 말한다.
